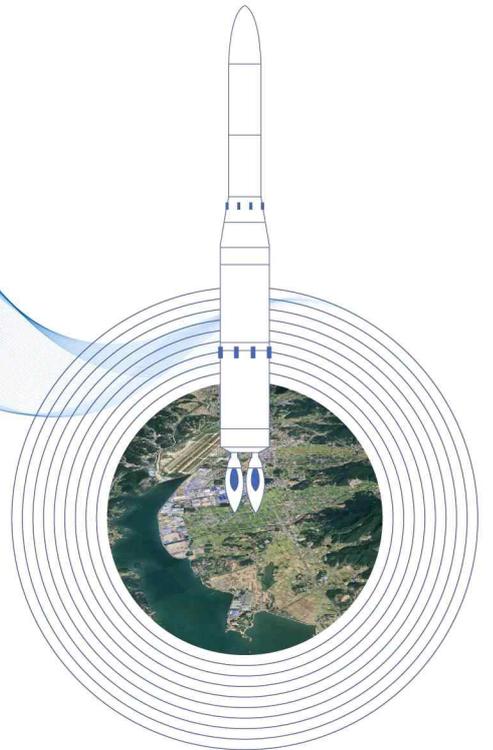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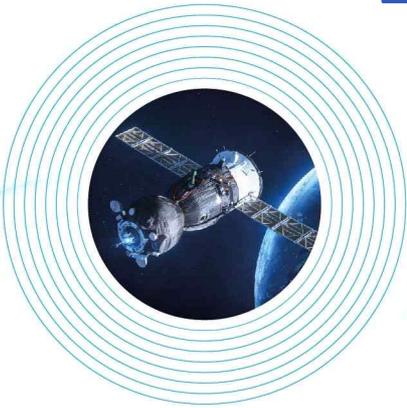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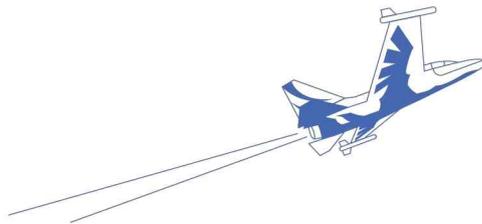


2023. 10월

우주항공산업 동향



우주항공과 미래도약
함께 합니다.



우주항공산업 동향

관 내 동향

사천시, 경남도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 개최

- 사천시는 경남도와 함께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산·학·연·관 관계자 및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설립 당위성과 조속한 개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 개최됐다.
- 토론회는 이창진 건국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인 김승조 전(前)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포함하여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안영수 서경대학교 교수,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한편 이날 국회를 찾은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사 앞을 향의 방문하여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며 건의문을 낭독하고 구호 제창을 했다.

사천시, 서울 ADEX 2023에서 큰 성과 올려

- 사천시가 서울 ADEX 2023(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운영한 ‘사천시 홍보관’이 큰 성과를 올리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서울 ADEX 2023’은 지난 17~22일까지 6일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개최됐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550개 사가 참가했다.
- 이번 ‘사천시 홍보관’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서비스(KAEMS) 등 지역 내 우주항공 관련 14개 기업이 참가하여 B to B 상담 70여 건, MOU 2건 체결 등의 큰 성과를 달성했다.
- 한국항공서비스는 미국의 항공기 부품정비 및 공급 전문 업체 S3와 공기 터빈 시동기(ATS) 부품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부품공급 파트너십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 그리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록히드마틴과 단독 파트너로 대형 수송기 C-130 컨소시엄 MOU를 체결했다.
- 이 외 사천시와 참가기업들은 에어버스, 사프란, 노스롭그루먼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미팅을 가졌으며 일본 항공우주공업회(SJAC)의 사토 고키 부회장, 주한 체코대사, 캐나다 대사관 등에서 사천시 홍보관을 방문해 사천시와 우주항공산업 협력에 대해 뜻깊은 논의를 했다.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 전략 시민교육 실시

- 사천시는 10월 25일 시청 대강당(2층)에서 사천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 전략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강의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상근부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 우주항공산업 현황,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현황, 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우주항공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였다.
- 한편,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우주항공산업 중견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노사 상생 문화 구축,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천에어쇼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우주항공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 항공산업 미래발전 시민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우주항공산업 분야 지식 함양과 우주항공청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바란다면서 사천시가 국내 최고의 우주항공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KAI, 산림항공훈련센터 구축으로 시뮬레이터사업 확대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4일 원주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훈련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 KAI는 최대 3대의 시뮬레이터의 운영이 가능한 산림항공훈련센터 구축을 담당했으며 훈련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운영될 카모프(Ka-32) 헬기의 시뮬레이터를 개발·납품했다.
- Ka-32 기종은 산림청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항공기로 현재 산림항공본부에서 29대를 운용 중이다.
- KAI는 2020년 11월 산림항공훈련센터 구축 및 Ka-32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며 이 기종은 실제 항공기와 가장 유사한 비행 특성을 구현한 시뮬레이터에게 주어지는 국토교통부 모의비행장치 지정서 최고 등급인 3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 KAI는 이를 기반으로 해외기종 및 함정으로 시뮬레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훈련센터 구축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전 세계 7개국, 29개 기지에 총 63여 대를 납품했다.

박동식 시장,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1인 시위

- 박동식 시장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우주항공청 위상, 권한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 박 시장은 “우주항공인의 오랜 염원인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 결정과정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이해관계 충돌이 지역갈등으로 비화되어선 안되고 나아가 우주항공청 설치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망쳐서는 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1300조원 우주시장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 내 동 향

경남도, 미 항공우주국과 우주항공 분야 소통 채널 확보

-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우주항공 국제협력 경남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 순방을 가졌다.
- 경남도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를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방문해 메리디스 맥케이(Meredith Mckay) 부국장보를 만나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메킨지 리스트럽(Makenie B.Lystrup) 센터장으로부터 센터 기능과 조직 및 주요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모든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나사(NASA)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
- 또한 친선결연 32주년을 맞이한 메릴랜드주를 방문해 웨스 무어(Wes Moore) 주지사와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위한 면담을 가지고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격년제 상호 교류 방문과 지역기업 간 상담회, 국제공동 연구개발 등 우주항공 산업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박 지사는 “이번 출장을 통해 나사, 메릴랜드주와 우주항공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우주항공산업, 투자유치와 관광 홍보, 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공모델을 도정에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일본 아이치현과 우주항공산업 발전 협약 체결

-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9월 26일 일본 아이치현을 방문하여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와 우호 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날 행사는 '에어로마트 나고야 2023'을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는 「ANAC(아이치-나고야 에어로스페이스 컨소시엄) 리셉션」과 함께 진행되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경남도와 아이치현은 이날 행사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하고, 우주항공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 또한, 아이치현이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일본 최대 스타트업 시설 「STATION AI」와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3대 권역별 창업거점 「G-SPACE」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스타트업) 분야에서도 양 지역의 기반 시설 구축과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의 상호 이용을 통하여 스타트업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ANH, 민항기 객실 분야 사업 확대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ANH)는 5일 아시아 최대 국방 및 엔지니어링 그룹인 ST 엔지니어링과 B737 확장형 항공기 화장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ST 엔지니어링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2만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아시아 최대 국방 및 엔지니어링 그룹이자 항공 MRO 시장 세계 5위권의 항공회사이다.
- ANH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설계조직인증(DOA)과 생산조직 인증(POA)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국제인증이 가능한 기업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B737기종의 확장형 항공기 화장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양사는 협약을 통해 최첨단 경량 복합 패널 제조 기술이 적용된 객실부품을 설계, 제작 및 최종 조립, 시험 및 국제 인증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 내 동 향

과기부, UAE 첨단기술 장관 만나

- 과기부는 20일 이종호 장관과 사라 알 아미리 아랍에미리트(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겸 우주청장과 만나 우주 분야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겸 우주청장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아미리 장관은 과학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장관은 한국 과학영재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장관은 지난 1월 개정한 한-UAE 우주 MOU 후속조치로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 우주기술 발전에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 이 장관은 “UAE와의 과학기술·ICT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점차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어 기쁘다”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인천에 해경 위성센터 건립 예정

- 해양경찰청이 2025년 말까지 90억 원의 예산으로 인천에 자체 위성센터를 건립한다.
- 센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등 3개 위성을 통합 운용해 불법 조업 어선과 해양 오염 사고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식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건립 후 전문인력 2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 센터 건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경 등의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위성 발사를 앞두고 추진됐으며 정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예산 5조 5000여억 원을 투입해 55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 해경은 현재까지 KT에서 발사한 무궁화 5호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관측과 수색구조 위성이 없다.
- 이 때문에 모든 해역을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센터가 건립되면 관측통신·수색구조 등 3개 위성을 통합 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해 외 동 향

스페이스X, 유럽 기밀 위성 발사 계약으로 시장 독점 강화

- 스페이스X가 유럽우주국(ESA)의 갈릴레오 인공위성 4기를 내년 중 궤도에 올리기로 했다.
- 스페이스X가 ESA와 갈릴레오 인공위성 발사계약을 맺은 것은 처음으로, 유럽의 군사 목적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리게 됐다.
- ESA는 지구 주변에 30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GPS와 같은 범지구적 항법 시스템을 운용하는 갈릴레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기업의 발사체를 사용하는데에는 부정적이었다.
-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프랑스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의 로켓 개발이 늦춰지면서 스페이스X와 계약하게 되었다.
- 이 외 최근 ESA의 우주망원경도 우주로 보내면서 스페이스X는 우주발사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게 되었다.

홍콩 첫 인공위성, 중국서 발사

- 홍콩이 제작한 첫 인공위성이 11월 하순 중국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한다.
- 홍콩은 '홍콩 위성 제작 센터'(AMC)가 제조한 위성 '홍콩 스타'가 조립과 시험 과정을 모두 마치고 홍콩 첫 위성 제작 및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 홍콩은 중국의 우주 굴기에 동참해 해마다 300대 이상의 위성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번 위성은 초분광 원격 감지 센서와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지구를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재난 방지, 스마트시티 건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GPS 정보를 제공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도 활용하고 통신, 항법, 원격탐사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통합위성이다.
- 홍콩은 자체 개발한 위성을 통해 우주 시대에 동참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센터가 앞으로 3~5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위성 제조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작성일	2023. 10. 24.(화)	보고일	2023. 10. 25.(수)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김난주(055-831-3473)